

유네스코 문화유산 24절기의 변화



전형일의

세상이야기

24절기(節氣)가 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력(陽曆)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기존 ‘율리우스력’을 보완해 만든 ‘그레고리력’이다.

또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된 것은 프랑스 샤를 9세가 1564년에 선포한 이후이다. 만우절 탄생 배경처럼 이는 비과학적이고 자연 현상과도 무관하며 극적인 사연도 없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달(月)을 중심으로 한 역법(曆法)인 음력(陰曆)을 사용했다. 그래서 달력이다. 음력은 달의 모양만 보고도 날씨를 대략 알 수 있어 역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유용했다. 변화하는 달의 모양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생체 활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들의 생리 현상인 월경(月經)도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적 현상’에서 유래했다.

특히 달은 지구에 가까워, 그 위치에 따라 바닷물의 조수간만이 생긴다. 따라서 달의 주기에 따른 ‘물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어

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음력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 농경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계절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운 채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구에서 볼 때 1년에 걸쳐서 태양이 하늘을 이동하는 경로를 황도(黃道)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에서 관찰한 태양의 연간 이동 경로를 15도마다 구분을 했다. 즉 360도를 15도마다 나눈 것이 24절기다. 천문학 기준점은 춘분(春分)이다.

입춘(立春), 동지(冬至) 등은 매년 2월 4일과 12월 22일로 윤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정해져 있다. 이는 24절기가 철저히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음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 완성됐다. 바람, 비, 눈, 더위, 추위 같은 짧은 시간의 상태를 날씨라고 한다면, 수십 년 이상의 긴 주기를 두고 변화한 것을 기후라고 한다.

절기는 계절 변화의 규칙을 반영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지 일기예보는 아니다. 음력과 절기가 합해진 태음태양력은 천문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자연 흐름에 가장 적합한 역법이다. 이 때문에 24절기는 2016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

다. 24절기는 고대 중국 진한(秦漢) 시기에 이미 실용화됐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발상지가 화북 지방이라 우리나라 기후와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농기구 점검, 발농사 준비, 작물 모종 키우기 등 체감 날씨나 농사에는 역시 24절기가 사용됐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에게 익숙한 24절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최근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상승했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처서(處暑)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해발 900m가 넘는 고원 지대인 강원도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날씨는 인류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했다. 기후는 개인의 건강이나 정서뿐 아니라 농업,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따른 이상 날씨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인류가 새로운 기후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덧붙여 사주(四柱)는 입춘을 기준으로 ‘띠’가 정해지는 등 24절기에 따라 팔자(八字)가 정해진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면 그 특성이 달라져 난감해진다. /전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정치에 휘둘린 방사청, 표류하는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지수첩

이승용
(산업부)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차세대 해군력의 핵심 프로젝트가 행정 혼선과 정치 개입 속에 방향을 잃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사업의 총괄 기관이지만 이제는 조정자도, 결단자도 아닌 이해관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관료 집단으로 전락했다. 국방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흔들리는 사이, 수년간 준비된 미래 전력 사업이 멈춰 섰다.

논란의 중심은 방사청의 ‘보안감점 연장’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발점 만료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로 돌연 연장했다. 스스로 유지해온 ‘최

초형 확정일로부터 3년 적용’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법리적 신뢰가 동시에 무너진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보안감점 연장’ 과정이다. 발표 직전 여당과 국방부 방사청이 비공개로 협의했고, 여당 의원에게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검토보고’가 제출됐다. 이후 방사청은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을 공식화했다.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전형적 사례로 국방 행정의 독립성과 신뢰가 정치의 흐름에 따라 흔들린 셈이다.

KDDX는 단순한 조선사업이 아니다. 함정 설계, 전투체계, 레이더, 추진체계 등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우리 해군의 자주전력 상징이자 방산 수출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그러나 방사청은 조선업계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며 사업 일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의계약이나, 경

쟁입찰이나’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군의 전력 공백은 커지고, 산업의 동력은 식어가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립은 결국 국방방사청의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다. 주무기관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자, 정치권이 개입하고 여론이 흔들리며 사업의 주도권이 사라졌다. 행정 혼선이 이어진다면 차세대 구축함 개발은 ‘국산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와 멀어질 뿐이다.

방사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기술과 절차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다. 행정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는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국방 행정이다. 방사청이 원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KDDX는 ‘국산 구축함’이 아니라 ‘국방 신뢰의 침몰선’으로 남을 것이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8월 2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48년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긴축재정이 필요. 60년생 결심이 흐지부지되니 일찍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라. 72년생 돈 앞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 84년생 투자의 진로변경은 신중하게.



37년생 좀 부족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49년생 이미 시작한 일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61년생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 73년생 부모님과 화합해본 적이 없어 오늘도 근심이면 반성을. 85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38년생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음. 50년생 이익만을 보고 달리면 결국 손해. 62년생 한 차이가 하늘이 무너질 것같이 아쉽다. 74년생 정확하여야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 86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준다.



39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51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주변부터 살펴라. 63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75년생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8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40년생 좋은 결과는 기다린 선택에서 비롯된다. 52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둘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76년생 여전히 백미처럼 굳게일확이다. 88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올 것.



41년생 오후 차 사고를 조심. 53년생 바람이 그칠 생각이 없다. 65년생 늘 대기만성(大器晩成)을 기억. 77년생 생각한 일들이 꼭꼭 맞는데 부모님 교육 덕이다. 89년생 재산을 마음은 별이라도 딸 듯이 주고 싶으나 계산하고 가져.



42년생 마음을 정갈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54년생 뚝탄배 가듯이 순조롭다. 66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나 보관하라. 78년생 할 일 없이 여태까지 실업 자치세. 90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파도치면 지워진다.



43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뜸 들이지 않는 빠른 결정이 필요. 55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67년생 이사계약서는 주인을 확인하고 할 것. 79년생 오늘부터 파티팅. 91년생 지금이라도 현재를 파악해야 내 갈 길이 보인다.



44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56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했네 두가 백로인가. 68년생 내일을 응원하자. 80년생 대낮에 꿈을 꾸니 망상. 92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45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에도 나가보자. 57년생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하는 기본이다. 69년생 앞날이 창창하니 힘내도록. 81년생 이익에 욕심내다 손실을 보니 마음도 처량하다. 93년생 명예가 높아지고 축하도 받는 날이다.



46년생 주식투자손실로 나뭇가지가 늘어지듯 한숨만. 58년생 뒤돌아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70년생 조금 안다고 지나친 교만은 혼자 고독하다. 82년생 남의 연인 짝사랑하지 말도록. 94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올리지 마라.



47년생 형제의 의가 좋아야 할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발생. 59년생 즐거움에 도취하다 치랑 조심. 71년생 신용을 지켜 내일을 얻어라. 83년생 남에게 받은 은덕을 나도 베풀자. 95년생 매사에 너무 작은 것을 아끼려고 큰 것을 놓치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고사를 왜 지내야 하나

한국의 전통 사회에는 고사라는 의례가 있다. 고사는 액운을 없애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神에게 비는 풍습이다. 단순히 제사 의례를 넘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앙적 풍습이었다. 고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큰 사건을 앞에 두었을 때, 신에게 알리고 복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고사는 집을 지을 때나 농사를 시작할 때 또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행해졌다. 현대 사회에서도 개업식이나 영화 촬영 현장 건축 현장 등에서 여전히 고사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단순한 과거의 잔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고사를 지내는 큰 이유는 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니.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간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운명을 초월적 존재와 연결해 이해하려 했다. 따라서 고사를 통해 하늘이나 신령,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면 복이 온다고 믿었다.

농경 사회에서는 풍년을 어촌에서는 풍어를 가정에서는 무사태평을 바라는 마음이 고사 속에 담겨있다. 또한 고사는 액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앙이 따르기 마련인데 고사를 지내면 이러한 불운이 사라지고 길운으로 바뀐다. 집을 새로 지을 때 고사를 지내는 이유도 결국 그 집에서 살게 될 가족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함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것도 예상치 못한 실패와 손해를 막고 순조로운 성장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회사 개업식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 역시 직원과 손님 모두에게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는 의례다. 과학과 합리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고사의 전통이 살아 있는 것은 단순히 신앙 때문만은 아니다. 복을 바라고 액운을 피하고 문화적 장치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라기보다 인간다운 소망의 표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